보스톤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Sunday Worship Service

April 12, 2020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Pastor: Rev. Young Ghil Lee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Homepage: www.kcboston.org Email: kcbweb@hotmail.com

Luke 누가복음 24:5-7

⁵ And as they were frightened and bowed their faces to the ground,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⁶ He is not here, but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⁷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rise."

마태복음 Matthew 28:1-10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공부 반 다음 주 성경공부: 제 7 과 복음과 성령1 매일 성경 읽기표

4월 13일(월)	로마서 8:1-2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4월 14일(화)	로마서 8:3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하나님				
4월 15일(수)	로마서 8:4	영을 따라 행하는 이들				
4월 16일(목)	로마서 8:5-6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4월 17일(금)	로마서 8:8	육신에 있는 자들				
4월 18일(토)	로마서 8:10	몸은 죽고 영은 사는 자들				
4월 19일(주일)	로마서 8:13	육신대로 살면 얻게 될 결과				

지난주 헌금 통계:

정기/십일조	£ \$	15,239.00	주일헌금	\$ 00.00	주일	학교	\$ 00.00
감사헌금	\$	00.00	선교헌금	\$ 00.00	기	}	\$ 00.00
행사헌금	\$	00.00	지정헌금	\$ 00.00	합	계	\$15,239.00

교역자 연락처(Church Ministerial Staff)

이영길 목사: 781.467.0002, ygleekcb@hotmail.com 윤경문 목사: 617.359.3002, kmyoonkcb@hotmail.com 김수영 목사: 213.215.8562, suyoung.kim83@gmail.com 이요한 목사: 617.777.2370, yohanrhee@gmail.com 김성천 목사: 781.697.8968, sungchunk2@gmail.com

Factor Sunday Service

	Easter Sunday Service				
April 12, 2020 at 9 A.M	<u> </u>	인도자: 이영길 목사			
	I	Presider: Rev. Young Ghil Lee			
전주 Organ Prelude		반주자 Organist			
환영 Welcome		인도자 Presider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Presider			
*찬양 Praise Songs		찬양팀 Praise Team			
*개회 기도 Opening Prayer		인도자 Presid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Together			
*찬송 Hymn	# 새 164(통# 154)	다같이 Together			
기도 Prayer		이하은 학생(Heather Lee)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Luke (누가복음) 24:1-7	이응규 어린이 Brian Lee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설교	"Finding Jesus"	김수영 목사			
Sermon for Children/Youth		Rev. SuYoung Kim			
헌금/헌금송	"살아계신 주(Because He Lives)"	찬양대 Choir			
*헌금 송영 Offertory # 새 !	50 (통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All to Jesus I Surrender).	영어로) 다같이 Together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김영범 장로 Elder Young-Bum Kim				
성만찬 Communion					
광고 Announcements		인도자 Presid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Matthew) 28:1-10 정광근	집사 Deacon Kwang K.Chung			
설 교 Sermon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영	길 목사 Rev. Young Ghil Lee			
	("There They Will See Me")				
*찬송 Hymn	#새 160 (통 # 150)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이영	길 목사 Rev. Young Ghil Lee			
*후주 Postlude		반주자 Organist			

어린이/중고등부 설교- "No One Is Alone" (John 20:19-23)

알리는 말씀

- 1. 환영: 삼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2.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3. 당분간 모든 교회 집회나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이멜, 전화 안부를 통해서 새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보이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http://kcboston.org/ministry/).
- 5. 지난 주 故 이숙재 권사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추후 추모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Announcements

- 1. We would like to welcome all who are worshipping God in this worship service where three generations come together in one heart.
- 2. 1. Today, we have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May the joy of resurrection and the blessing of victory be with you all.
- 3. For the time being, all church gatherings and meetings have been canceled. We hope that you will find new ways of fellowship through video calls, emails or phone calls. Please reach out to the church office if someone needs assistance.
- 4. You may give your offerings online at church's website(http://kcboston.org/ministry/.)
- 5. Last week, the Late Kwonsa SookJae Lee passed away. We will have a memorial service in the future.